13강 - 여성 영화의 흐름

이번 시간에는 영화와 페미니즘, 여성 영화죠. 여성 영화와 여성의 묘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영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주의'라고 하는데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입니다. 여성주의는 반드시 여성들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성들도 주장하죠. 이것은 성을 대립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회가 인간의 반의 입장, 즉 여성의 입장을 왜곡시키거나 혹은 거세시킨 역사를,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인데요. 흔히 이것을 잘 못 이해를 하면 여성들이 남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잘 못된 것입니다. 여성들의 불리한 입장을 많이 대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잘 못했다는 입장을 지적하죠. 그런 입장에서 남성을 억압하는 이론이라고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의 본 의미는 남녀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죠. 남녀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이 지금 사회에는 결여돼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백년 동안, 수천년 동안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혹은 현사회적으로 지적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평해지고 있는,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페미니즘 운동의 이론적 배경

여성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는가? 형평하게 남녀를 다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논의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은, '페미니즘 운동' 자체가 사회 속에서 왕성하게 자리 잡아가면서부터인데요. 1960년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이 그 이후에 몇 가지 운동의 방향을 갖고 사회 속에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이란 것도 있고, '급진주의 여성해방론', '맑스주의적 여성해방론',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 등 다양한 시각의 여성해방운동이 있습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 '계급적 갈등', '인종적 갈등', '생물학적인 특성에 기인한 차별-성 차별' 이런 것들을 공통의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요소들이 함께 극복되어야만 진정한 여성해방이 성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도 그러한 테마들을 분석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화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

영화 속에서 여성 해방 이론이 본격화 된 것은 1970년대 서구에서 이런 논의가 심화되어 가면서 나타났죠. 영화 속에서 페미니즘의 가치 탐구를 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첫 째는, 기존 영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여성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정된 형태-스테레오 타입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흔히 '영화 속의 여성 이미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긍정적 이미지로 여성을 묘사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부정적 이미지로 여성을 묘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영화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읽게 되고, 또 영화가 얼마나 왜곡된 여성 이미지를 일반 대중관객에게 전파하는지를 비판하는 그런 방식이죠. 주로 196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많은 고전적 영화들이 이러한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 째는, 단순한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심층적으로 영화의 관객 동화 작용을 알아보고, 남성 시각의 영화적 구성법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며, 여성 시각의 영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영화의 경향입니다. 그 경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고전적 영화의 관객 동화 작용 자체를 인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남성 시각을 여성 시각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중 상업 영화 경향과 관객 동화 작용 자체를 무시하고 새롭게 영화를 구성하는 비상업적 영화의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영화 분석 방법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기존 영화 작품에서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을 가려내는 것-이미지 분석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긍정적 이미지로 여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먼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천사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선량한,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경우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거나, 요부-유혹하는 여성,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여성, 남성을 괴롭히는 여성, 창녀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영화 속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여성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향이에요. 여성은 순종적이고 온순하고 상냥하고 착하고, 아니면 악질적이고 유혹자이고 파멸로 이끄는 악마와 같은 본성을 갖고 있고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몇 가지 이미지를 관객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사회 속에서 여성을 "그렇지~영화 속의 여성과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편견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을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남성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여성은 아주 획일화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남성도 악당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비교적 관대하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여성은 왜곡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관객 동화 작용을 보면, 남성 시각으로 가다보니까 영화의 이미지 자체도 남성들은 관대하게 그려지는데 반해서, 여성은 아주 극단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영화 전체가 남성의 이야기로 그려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주인공도 남성이 많아요. 물론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도 있지만 거의 남성의 역할을 여성으로 바꿔 놓은 듯한 이미지인 것이죠.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성, 말하자면 <에일리언>에 나오는 시고니 위버라든지.. 많은 여성 주인공들이 그동안 남성들이 했던 역할을 슬쩍 바꿔놓음으로써 여성을 더욱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드는 측면으로 제시 되었다는 것이죠.

남성 지배적인 관점을 그대로 이용하는 상업 영화가 있어요. 마치 남성 시각으로 읽게끔 만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여성의 이야기로 전복시켜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또는 관객을 남성 시각으로 동일시 시키지도 않고 완전히 관객 동화 작용을 차단하고 없애버린 채 영화를 끌고 나가는 그런 영화 형태가 있어요. 대안 영화죠. 대안 영화는 절대 상업적인 패턴의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영화가 잘 못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형태로, 관객을 동화시키지 않는 형태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죠. 마치 남녀의 갈등을 풀어나가지 않는 영화로 보이기 때문에 비상업적 영화 경향이 됩니다.

페미니즘이론의 정신분석학적 배경

여성 영화의 경향을 설명하는데 공통적으로 차용되는 학문은 기호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페미니즘 전반 이론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미, 유럽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세계권에도 그러한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이 많이 개념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선의 쾌락증"이라든지-인간의 시선 속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쾌락 추구"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긍정적인 이미지건, 부정적인 이미지건 남성이 여성을 지켜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이론이고요. 또는 여성을 치장 시키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성은 긍정적으로 치장되어 나타나요,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다든지 치장되어 나타납니다. 그런 여자가 나중에는 복종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이것을 물신주의라고 하죠.

일단 여성을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 하는 남성이 자신이 두려우니까 거꾸로 여성을 처벌함으로서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프로이트 이론에서 "거세 개념" 즉,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거세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심리를 여성을 치장시키고, 여성에게 그것을 전이시킨 후 거세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신 분석적인 개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그 이미지에 있어서 정형과 성 차별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헐리우드,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남성 위주의 여성 차별을 많이 담고 있는 감독이 바로 알프렛 히치콕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전적인 가부장 시선의 영화: <레베카> 분석

1940년에 만들어진 <레베카 Rebecca>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 <레베카>는 '나'라는 여주인공이 돈 많은 귀족 남자인 맥심 드윈터와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난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여자가 부자 남자와 결혼 함으로써 신분 상승을 꾀하는 그런 영화죠. '신데렐라식 결혼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눈에 들어서 선택이 된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도 역시 '신데렐라 환상'을 갖고 있는 여자로 설정이 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드윈터라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드윈터는 지금 재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전처 이름이 레베카입니다. 레베카는 이미 죽었고요. 이 드윈터라는 남자의 집에는 죽은 전처 레베카의 유품과 흔적이 그대로 놓여져 있어요.

그 방도 그대로 있고, 심지어는 레베카를 따르던 몸종 덴버스 부인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제 주인 마님이 바뀐거죠. 이 덴버스는 새로운 주인 마님을 냉정하게 대합니다. 새로운 부인인 이 여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는 덴버스 부인은 여주인공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주인인 드윈터 역시 같이 파멸되기를 바라는 악마같은 여자의 화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영화에는 세 명의 여성 등장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하나 같이 정상적인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왜곡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선, 영화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레베카라는 인물은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레베카에 대한 추리와 상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레베카는 육신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속 등장인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레베카라는 인물의 설정에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가부장적 시각에서 여성의 존재는 흔히 지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레베카의 실제는 남편 드윈터의 입으로만, 기억으로만 형상화 될뿐입니다. 실체로서 움직이지 않아요. "죽은 레베카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생전을 회상할 수 있는 인물인 드윈터에 의해서만 회상이 되는데, 관객이 레베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라곤 '레베카 자신 형상으로서'가 아니라 '남자인 드윈터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곧 여자의 존재 자체를 쥐고 있는 것이 남자라는 가부장적 질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 째 여인은, 바로 드윈터 부인인데요. 이 영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불리는 이름이 남편의 성을 따른 '미세스 드윈터'입니다. 서양에서는 남편의 성을 따르죠. 그래서 드윈터 부인이 됐는데요. 영화에서는 '나'라는 독백이 나와요. "나는...." 이런 식으로, '나'라고만 등장을 하지, 이 여자의 실제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곧,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여성을 천시할 때에는 여성이 이름이 없잖아요, 복순이..간난이. 등 이렇게 부르다가 시집가면 박씨부인 이런식으로 부르고 실제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여성이 굉장히 종속적인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이름 대신에 그녀는 신데렐라적 욕망을 갖고 있는 허황한 여성이며, 남성에 대해서 지극히 순종적이고 성처녀와 같이 선량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이미지의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죽은 레베카는 남편에 의해서 묘사되는 것으로 보면 아주 반항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성은 죽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나쁘게 평가가 되는 데 비해서, 현재 존재하는 새로운 부인은 순종적이고 온순한 여성이에요. 이 말은, "여성이라면 이래야 한다. 순종적이여야 하지, 저항적이고 고집이 세고 이러면 안 된다." 는 남성 시각의 정형을 엿 볼수 있읍니다, 그녀의 이름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세 번 째 등장하는 여자는 덴버스 부인인데요. 레베카의 하녀를 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질투와 음모와 사악함, 악마와 같은 여자의 대표적인 전형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여성 이미지로 정형화 되어있죠.

세 여성을 종합을 해보면, 여성은 하나 같이 비정상적으로 왜곡 묘사되어 있고 유령-레베카, 악마-덴버스, 성처녀-그녀.. 이렇게 순종적인 이미지와 저항적인 이미지 그리고 현실에 실재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에 의해 조정 받고 수동적이여야만 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권위에 대항하는 여성은 이 영화대로라면 처벌 받고 제거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주고. 레베카의 죽음과 덴버스 부인의 죽음(덴버스 부인도 나중에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중영화에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부장 시선의 전복: 수잔 세이들만의 <그녀는 악마>

현대영화에는 상업 대중 오락 영화 가운데서, 겉으로 보면 여성을 왜곡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관객이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남성을 비난하는 여성 영화들이 있어요.

<그녀는 악마She-Devil>가 그런 영화죠. 1989년도에 나왔습니다. 수잔 세이들만Susan Seidelman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보기에 따라서 급진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메세지를 갖고 있지만, 헐리우드 상업 오락성 속에서 아주 쉽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영화라고 볼 수 있는 <레베카>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 영화는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She-devil'입니다. 악마와 같은 여자예요. 그녀는 질투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남자를 파멸

시키고, 심지어는 가정을 다 파괴하고, 독립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영화 속에서 동정을 받는 것은 파멸된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악마 같은 여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이 수잔 세이들만 감독과 다른 헐리우드 감독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잔 세이들만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세이들만 감독은 전복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래의 남성 시각 영화에서는, 이 영화에서 처럼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면 여성은 남편의 그 외도가 멈출 때까지 순종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소위 그 사악한 아내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외도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순종적이지 않죠. 악인 역할을 자처하는 여성입니다. 남성 시각에서 사악한 악마의 모습을 갖게 되지만, 여성 시각에서 보면 그 여성은 오히려 남편의 사악함을 응징하는 정의의 여성으로 그 의미가 전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남편의 나쁜 버릇을 응징해나갑니다. 그녀는 남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서서히 파멸시키는데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여자, 남편의 돈, 그의 집,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 가버립니다. 남편은 완전히 파산을 하게 되고 여자는 자기와의 관계마저도 없애버린 채 혼자만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인하리만치 처절한 이 복수 이야기는 페미니즘 시각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이 이야기의 내용만큼 심각하거나 진지한 것이 아니고 코믹하게 전개되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편하게 상업적 오락영화로서 재밌게 즐기지만 그 메세지는 강합니다, 심각한 거죠. 전략적인 내용이에요. 남편의 소유물, 남편의 힘이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근거를 하나씩 없애는 것이죠. 남성은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죠. 여성 역시도 소유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씩 파괴해 나갑니다.

이것은 여성 운동에서 극악한 남성을 응징하는 수순 하고 비슷합니다. 여주인공이 파괴해가는 것들이 바로, '남성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운명이었거든요. 운명을 타개해나가는 적극적인 여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수가 있죠.

대중영화속의 여성영화

여성 감독만이 여성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협소한 생각입니다. 남녀를 떠나서 여성 시각은 존중되어야할 테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성 감독에 의해서 여성 시각이 영화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Fried Green Tomatoes At The Whistle Stop Cafe>(1992)에는 두 여자 - 잇지와 루쓰가 나오는데요. 한 여자는 대단히 수동적인 여성이고, 한 여자는 저항적인 여성인데요. 두 여성 모두 남성에게 억압된 운명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두 여성의 우정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여성 연대적인 영화, - 성적으로 레즈비언 영화라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 여성이 합심해서 남성의 부조리함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한국영화속의 여성영화

우리 영화는 얼마만큼 여성에 대한 묘사가 형평해졌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 영화에 적용해서 알아보죠.

90년대 이후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김유진,1990), <네온 속으로 노을지다>(이현승,1995),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장길수,1994) 이런 영화들이 여성주의를 표방한 영화들입니다. 페미니즘 자체를 전면에 드러내놓고 나온 영화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성주의적인 성격을 갖는지는 관객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실망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이래로 멜로드라마를 보면 여성을 유린하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80년대 <애마부인>시리즈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중산층 여성들의 성적인 고민과 방황 이런 것들을 소재주의로 오락차원에서 성적으로 그려왔기 때문에 대체로 여성 현실을 잘 표현하지 못했죠.

박철수 감독 같은 경우는 여성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에미>(1985), <안개 기둥>(1986), <서울, 에비타>(1991) 등 입니다. 그 전의 <애마부인>시리즈와 같은 중산층 호스티스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산층 여성들이 느끼는 고독이라든지, 복수, 오락적인 취미 정도로만 그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다룬 영화들이 희소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페미니즘 영화의 제작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 이론적으로도 페미니즘 영화 비평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작과 현실이 서로 형평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입니다. 현대 영화를 페미니즘적으로, 분석적으로 읽어내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적 수요, 학문적 수요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그 보답으로 제작 현실에 반영이 돼서 올바르게 그려진 여성 묘사가 나타나는 제작현실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화계에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헐리우드 영화계는 상당히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영화계는 아직도 70년대 80년대 영화적 유행을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주의 영화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면서 남녀 그리고 성차별, 남녀라는 이분법 질서를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퀴어시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퀴어시네마는 남녀를 초월하는 성이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영화적인 탐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